

동국산업, 중국 車부품 시장 본격 진출

- 엠알인프라오토의 중국 현지법인에 20% 지분투자..포스코-SKD 참여

- 1일 착공식..내년 4월 완공

2011-11-02 09:45

동국산업이 중국 자동차부품시장 진출의 획기적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 31일 국내 자동차부품회사인 엠알인프라오토의 중국 현지법인 착공식이 열렸다. 엠알인프라오토는 중국 현지 자동차부품 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 곤산시에 자동차공장 착공에 들어간 것으로 이 공장에서는 자동차 자동변속기와 안전벨트 도어록 등이 생산될 예정이다.

동국산업은 엠알인프라오토 중국 현지법인에 102만달러를 투자했으며 지분 20%를 확보, 2대주주가 됐다. 동국산업 외에도 포스코와 SK네트웍스가 지분을 투자했다. 각각의 지분율을 15%, 14%다. 포스코의 글로벌 인지도를 활용하기 위해 중국 현지법인명은 '포스인프라오토'로 정했다.

포스코가 고탄소 열연강판을 생산해 동국산업이 고탄소 냉연강판을 만들어 포스인프라오토로 보내 자동차부품을 생산, 중국 현지 자동차사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SK네트웍스는 동국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고탄소 냉연강판을 중국으로 보내는 물류를 담당기로 했다. 포스인프라오토에 대한 지분 확보로 동국산업은 기존 거래해 오던 중국 자동차부품사들에 대한 현지 물류기지도 확도하게 됐다. 포스인프라오토는 내년 4월 완공될 예정이다.

한편, 1일 열린 착공식에서는 이운영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운영 대표는 "중국 현지법인 투자로 기존에 10% 안팎이던 중국 매출비중이 대폭 늘어나고, 전체 매출증가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틸데일리]

/김국헌기자[[✉khkim@steelsteel.co.kr](mailto:khkim@steelsteel.co.kr)]

◇ 스틸데일리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